

본 브리핑은 페로타임즈 편집국에서 매주 발간하는 Report입니다.
원료, 가격, 해외동향 등을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간 시황 Report

2020. 12. 16. 제 36 호



페로타임즈
F E R R O T I M E S

1. 12월 첫주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160\$ 정점 하락 재반등 15일 155\$
철스크랩 글로벌 가격 400\$ 돌파, 추가 상승
철강재 Cost Push장, 내년 급등 전망
2. 철광석 : 수퍼사이클 재연? 내년 1분기까지 상승 전망...사상 처음 190\$ 돌파설
3. 철스크랩 : 터키 수입가 420\$, 내년 2월 430~440달러 예측...국내 7년만 40만원 ↑
4. 철강재
 - 국내 판재류 급등, 철근 상승 기대감...포스코 내년 1,2월 각각 5만원씩 10만원 ↑
 - 해외 중국발 급등 지속,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속, 1분기까지 상승 전망

시황분석리포트

12월 3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FERRO INDEX] 글로벌 철강재 및 원료 수출입 가격

단위 : 달러/톤, CFR

						변동폭		
						일주일	1개월	
	11-3주	11-4주	12-1주	12-2주	12-3주			
철광석(Fe 62%)	126	128	138	153	154	1	28	
원료탄(강점결탄)	157	163	167	175	182	8	25	
철스크랩	터키 HMS 1&2	332	350	361	400	428	28	96
	亞 HMS 1&2	340	360	380	415	440	25	100
	일본 H2 (백엔 FOB)	330	340	355	400	420	20	90
	*H2 한국도착(천원)	380	380	386	441	463	22	83
	대만 컨테이너	308	315	325	365	400	35	92
열연	본계강철 한국향(FOB)	575	590	605	635	675	40	100
	중국 오퍼(FOB)	564	576	595	628	636	8	72
	중국 내수 가격(위안)	4,290	4,340	4,420	4,660	4,640	-20	320
철근	중국 한국향(CFR)	*580	580	570	570	610	40	130
	중국 오퍼(FOB)	507	512	538	580	590	10	83
	중국 내수 가격(위안)	4,250	4,130	4,010	4,140	4,220	20	-30
냉연	냉연코일(FOB)	655	670	690	705	-	-	-
도금	아연도금코일(FOB)	705	720	745	760	805	40	95
빌릿	흑해 수출(FOB)	450	480	498	520	545	25	95
슬래브	브라질 수출(FOB)	528	528	595	660	660	0	133

철광석 원료탄 : 스폿계약 12월 14~15일 평균 / 철스크랩 : 최근 성약 및 오퍼 가격/페로타임즈 추정

중국 오퍼 : 무역업체 및 외신, 페로타임즈 추정

한국향 : 열연 냉연 도금재(본계강철 매주 1회), 철근(사강강철 월초 1회)

*12-3주 열연-일조강철/아연도-본계강철/철근-추정

중국 내수 가격 : 상해 12월 16일 기준

※ 최종 업데이트 12월 16일

*. 제공 : (주)페로타임즈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코멘트

1. 철광석

- 중국 수입 가격 : 14일 153.8달러로 11일 대비 3.8% 하락 이후 **15일 155.0달러로 재상승**
- 중국 정부는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고,
중국강철공업협회(CISA)는 지난 10일 철강 회원사들에게 방침을 전달하면서 하락으로 영향
- 중국의 철강 수요 및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철광석 재고 낮은 수준 '가격지지' 요인

2. 원료탄

- 15일 기준 182.5달러, 작년 7월26일(184.2달러) 이후 최고 기록
- 수요 호조 속에서 호주의 기상악화,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 지속 전망

3. 철스크랩(고철)

- 터키 수입 : 미국 대형모선 HMS No.1&2 427.5달러(CFR, 16일 기준)
 - * 터키의 철근 수출 가격은 FOB 610달러
 - * 미국 열연 내수 가격은 900달러대(930달러 진행중)로 초강세
 - * 추가 상승 전망
- 일본 수출 : 항만 H2 가격 FAS 4만엔 기록, FOB 기준 시세는 4만2000엔 주류
- 대만 수입 : 컨테이너 HMS No.1&2 400달러(CFR, 16일 기준) 신고가

4. 철강재

- 열연 : 본계강철은 이번주 한국향으로 아연도만 FOB 805달러에 오픈
열연 등 다른 품목은 '스킵' *일조강철은 한국향 열연 FOB 675달러 오픈
- 철근 : 이달 초 사강강철의 한국향 오픈 CFR 570달러
현재 중국 현지 오픈 FOB 590달러. 한국향 600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
- 냉연도금재 : 상승세가 가장 뚜렷한 품목. 냉연 750달러 이상 아연도 800달러 이상

5. 반제품

- 빌릿 : 흑해 수출 가격은 FOB 545달러. 일주일 25달러 상승 한달 95달러 상승.
 - * 터키의 철근 수출 가격은 FOB 610달러에 이르고 있음
 - 고철 수입 가격 420달러대 고공행진 등 배경으로 상승 지속 전망
- 슬래브 : 브라질 수출 기준 FOB 660달러.
미국의 수요 호조 및 가격 강세로 최고가 행진.
미국의 열연 내수 가격은 900달러대(930달러 진행중)에 이르고 있음

*. 제공 : (주)페로타임즈

이슈&전망

◆ 철광석

1.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호주 리오티토에 철광석 가격 결정 시스템 검토 요청

- CISA 루오 타이준 부회장은 15일 리오티토와 화상 통화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철광석 가격 결정 시스템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의 장기적으로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장 전달
- 리오티토 사이먼패리 부사장(판매 마케팅 담당)은 이에 대해 “가격 결정 시스템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

2. 철광석 가격 폭등의 원인/중국의 대안인 브라질 공급부족

- 철광석 가격 폭등 원인을 종합하면
 - ▲ 중국 수요증가 ▲ 최근 호주의 사이클론 발생에 따른 공급감소 및 중단으로 요약
- 중국은 전체 수입량의 60%를 호주에 의존
- 중국이 대안으로 삼은 브라질은 여전히 공급부족
- 작년 초 광미담 붕괴로 10개 지역 생산중단...내년 하반기에나 완전 정상화

3. 서아프리카 시만두 중국의 철광석 공급 대안 부상

-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해외 광산 개발 추진
- 이미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이 부상
- 시만두 지역은 전세계 최대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한 미개발 지역임, 18억 톤
- 바오우그룹은 시만두 철광석 광산에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다른 철강사들과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 진행중으로 알려짐.
- 기니 정부는 지난달 12일 시만두 철광석 수출을 위한 철도 및 심해항 건설 작업 승인
컨소시엄은 기니 정부를 비롯, 싱가포르 위닝쉬핑(winning shipping),
기니 물류업체 UMS(United Mining Supply), 중국 알루미늄 업체인 Shandong Weiqiao,
이들은 2025년까지 개발에 착수할 계획

4. 가격 전망 : 내년 1분기까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

- 2000년 초 슈퍼사이클 재연 가능성 제기 : 아래 기사 참고
- 수요산업 회복/글로벌 철강사들의 증산/공급부족 및 겨울철 재고확보 움직임 강화

*. 제공 : (주)페로타임즈

철광석 사상 최대치 190달러대 돌파도 가능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1>

-페로타임즈 12월14일자

철광석 가격은 일주일 새 10% 이상 급등했다. 이달 상승률만 20%를 웃돌았다. 11일 중국의 철광석(Fe 62%) 수입 가격은 CFR 톤당 160.0달러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10.4%(15.1달러) 급등했다. 11월 말 대비 상승률은 21.1%(27.9달러)에 달했다. 저점이었던 올해 4월 말 대비로는 94.1%(77.6달러) 폭등했다.

중국의 철광석 보유재고는 작년보다 적다. 같은 날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는 1억 2200만 톤으로 작년 12월 1억2700만 톤보다 적다. 전월과 비교하면 400만 톤 감소했다. 10월(1억2800만 톤)에서 2개월 연속 줄었다.

원료탄(강점결탄) 수입 가격은 179.6달러로 전주 대비 6.4%(10.9달러) 상승했다. 이달 현재까지 상승률은 8.8%(14.6달러)다.

업계 및 전망 기관들 사이에서는 사상 최대치였던 2011년 191.7달러(2/17)를 넘어 200달러에 이를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중국은 수요를 견인하는 동력이다. 내수 호조와 더불어 설비증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글로벌 각지에서 가을철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맞춘 증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국내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앞으로 200달러에 이를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2000년 초 ‘슈퍼사이클’ 재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원료 가격은 2000년대의 급등세를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같은 ‘슈퍼사이클’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폭락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로는 다시 급등 국면으로 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2011년 191.7달러(2/1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연 평균 가격은 2012년 120달러대에서 2013년은 160달러대로 급등했다. 이어 2014년은 연 평균 132.8달러(최고 158.9달러, 11/10), 2015년 평균 116.9달러(최고 139.2달러, 3/18)로 3년간 100달러대를 구가했다. 이후 2016년은 57.5달러, 2017년과 2018년은 65.2달러, 69.0달러로 바닥을 기었다.

2019년 초 발레의 광미담 붕괴로 인해 수천 만톤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2월부터 급등세가 시작됐고, 올해는 공급이 정상화 되기 이전에 중국, 동남아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름철부터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 제공 : (주)페로타임즈

◆ 철스크랩

1. 전기로 제강사 국내 고철 가격 인상 러시

- 12월 10~11일 인상 이후 16일부터 추가 인상 단행 : 품목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상승
겨울철 재고 확보 및 해외 급등이 배경
- ※ 세부 인상 내용은 페로타임즈 인터넷판 참조

2. 16일부 인상 이후 등급별 가격

- 현대제철 인천공장 어음 기준 (현금은 -1만 원 추정)
A등급 기준
생철 41만5000원/중량 39만 원/경량 34만 원, 선반설C 33만 원
- ※ 인상 이후 입고량 증가 예상. 이는 연말까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전망

3. 내년 1월 시장 추가 급등 가능성 높아...7년만에 40만 원대 현실화

(아래 기사 참고)

- 제강사들은 내년 1월 수입산 확보가 안된 상태
- 현대제철 지난주 일본산 6만 톤/동국제강 3만 톤 확보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0만 톤의 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연말이라는 점과 미국 일본의 수출 여력이 없는 상태
결론, 1월 수입공백이 발생, 추가 확보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촉박
- 제강사들은 수입공백을 국내서 메워야 할 상황임.
혹은 아래와 같은 폭등세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할 상황임

4. 해외 가격은 400달러 중반대, 그 이상으로 상승 전망

- 터키의 수입 가격은 HMS No.1&2 CFR 420달러대
- 내년 2월 선적분 430~440달러 예측(미국 공급사)
- 16일 일본산 베트남향 오퍼 가격
H2 CFR 450달러 기록 HS 및 신다찌(생철) 480달러
대만향 H1/H2 445달러 * 대만의 HMS No.1&2 수입 가격은 이번주 400달러 도달

5. 미국 일본 고철 '파동'

- 미국의 수출은 올해 사실상 마감
지난주 일부 제강사가 대형모션을 추진했으나 오퍼가 없음
미국 열연 내수 가격은 900달러대(930달러 진행중)로 현재 고철 가격은 높은 수준이 아님
- 터키의 수입은 계속 강세
철근 수출 가격은 FOB 610달러,
고철(420달러)과 스프레드는 190달러로 더 높은 가격에 수입 여력(통상 170달러서 저항)

6. 가격 전망

- 예측은 어려움 :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상태로,
현재로서는 내년 2월까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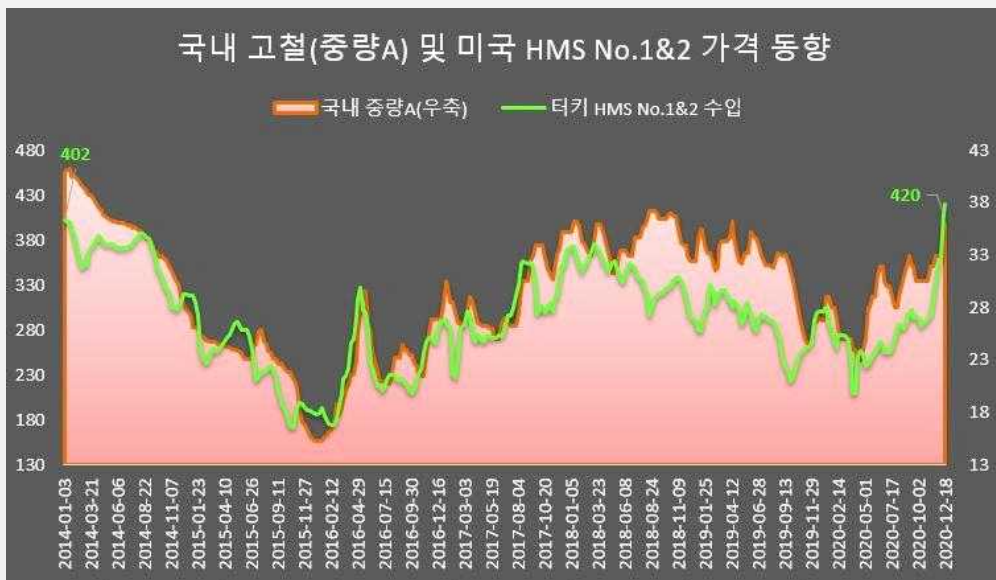
*. 제공 : (주)페로타임즈

국내 고철 7년만에 '40만 원' 시험대...글로벌 지표 420달러 돌파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9>

페로타임즈 12월16일자

2014년 1월 해외 400달러대...국내 중량A 40만 원 기록
現 중량A 36만 원 해외 420달러(46만 원) 10만 원 격차
10월부터 현재 상승폭 국내 6만 원 vs 해외 15만 원
해외 내년 2월 강세 방점 '과열' 지적에도 상승 불가피



국내 철스크랩(고철) 가격은 내년 1월, 2014년 이후 7년 만에 40만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내 전기로 제강사들은 16일부터 국내 가격을 톤당 2만 원 내외의 인상을 단행했다. 이달 인상은 지난주에 이어 2번째로, 계속되는 해외 급등세로 인해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상에 따라 중량A 구매 가격은 38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한 상태로, 앞으로 40만 원 선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지표인 터키의 미국산 대형모선 수입 가격은 이번주 CFR 톤당 420.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 40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달러나 추가로 상승했다.

현재 1월 선적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무역업계에서는 내년 2월 수출 가격은 430~440달러로 보고 있다.

대만의 컨테이너 수입 가격은 같은 등급을 기준으로 CFR 톤당 385달러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400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이번주 내수 고철 가격이 20달러 이상 급등했다. 고철 부족이 가장 큰 배경이다.

국내 가격은 이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현대제철을 필두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에는 미온적이다. 일본 동경제철의 경우 이달 15일까지 총 6차례나 인상한 것과 비교된다.

국내외 격차는 10만 원으로 벌어진 상태. 전기로 제강사들은 초고가의 수입산을 조달하는

데 부담이 크다.

해외 가격이 내년 2월까지 강세로 방점이 찍힌 상태에서는 국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한 상태로, 한순간에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이 시작되면 제강사들의 인상 레이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2013-2014년 해외가 400달러를 기록할 때 국내도 중량 기준 40만 원을 기록했다"면서 "내년에는 7년 만에 다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터키의 미국산 HMS No.1&2(8:2) 수입 가격은 2014년 1월 평균 400달러였다. 당시 국내 중량A 가격은 톤당 41만 원을 기록했다. 해외 가격은 2월부터 300달러대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도 함께 떨어졌다.

현재 중량A 가격은 평균 36만 원으로 파악된다. 제강사들의 2,3차례 인상으로 10월부터 현재까지 6만 원 내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터키의 수입 가격은 최저 284달러에서 이번 주 420달러까지 135달러(15만 원) 폭등했다.

◆ 철강재

1. 코스트 푸시(cost push) 장세로 내년 급등 전망

- 포스코는 내년 1,2월 각각 5만 원씩 총 10만 원 인상 발표
- 현대제철 동국제강 철근 인상도 함께 실시될 것으로 관측
국내외 고철 가격 급등으로 인상은 불가피한 상태
- 고로 쇳물원가는 12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년 1분기 분기계약 가격도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전망

2. 중국발 급등 지속, 국내 수입부진 및 내수 인상 여건 우호적

- 중국의 수출 증가 가능성은 낮음
- 국내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수입산 점유율 하락

3. 국내 유통 거래 가격 열연 등 판재류 급등 철근 급등 기대감 ↑

- 한국은 경기부양 정책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미흡하다는 게 문제
- 바닥 경기는 여전히 냉각 상태로, 가을철로부터 현재까지 보합에 머무는 상태
- 다만, 열연 가격은 포스코 대응재 기준 76만 원까지 최근 2,3주 10만 원 ↑
- 내년 포스코 등 철강메이커들의 인상은 유통업체들에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 철근 가격은 급등 기대감 상승. 재고바닥/고철가격 급등 배경으로 상승 대세 인식

4. 가격 전망

- 철광석 고철 원료, 슬래브 빌릿 반제품이 동반 상승 시너지
- 현재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1분기 상승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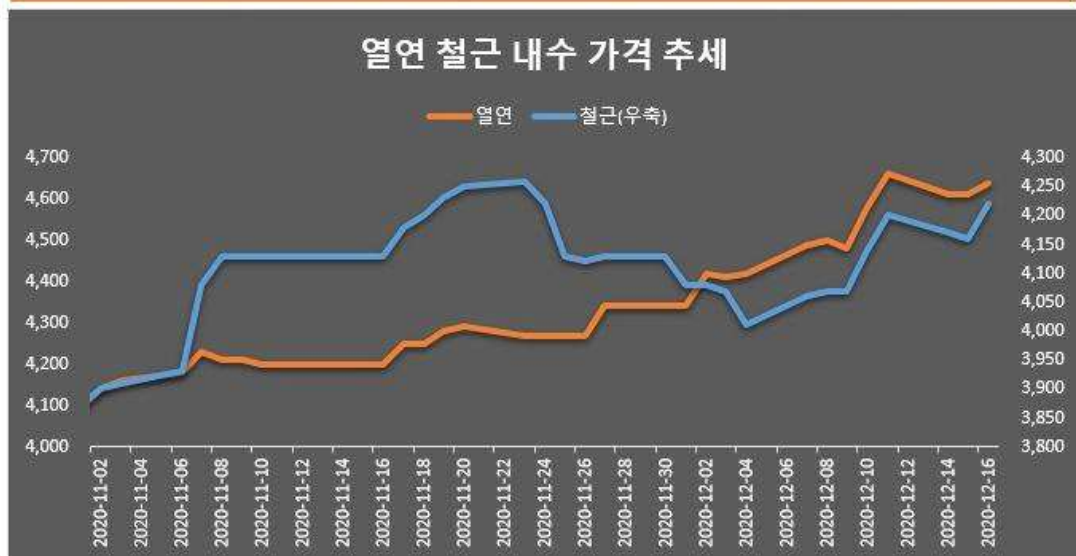
한국 및 중국의 철강 주요 품목의 유통 가격

◆ 한국

	열연		철근		형강			앵글 및 채널(잔넬)			
단위 : 만 원	포스코 대응재	중국산 (SS400)	국산	중국산	국산	포스코 베트남	바레인 말레이시아	국산 채널	국산 앵글	수입산 앵글	수입산 채널
2020-10-05	67	65	67	63	76	73	72	66	65	58	60
2020-10-12	67	65	67	63	77	73	71	67	65	58	60
2020-10-19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0-26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02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09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16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23	67	65	67	63	75	72	70	65	67	58	60
2020-11-30	70	69	67	64	78	72	70	67	66	60	62
2020-12-07	73	72	67	65	78	72	70	66	67	60	62
2020-12-14	76	75	67	65	78	72	70	66	67	60	62

중국 상해 지역의 주요 품목별 가격 현황

단위 : 위안	철근	열연	냉연	도금재	선재	후판
2020-12-15	4,160	4,610	5,640	5,810	4,540	4,370
2020-12-16	4,220	4,640	5,690	5,960	4,580	4,390
(달러 환산)	647달러	712달러	873달러	914달러	702달러	673달러
전날(15일) 대비	60	30	50	150	40	20
등 전주(11일) 대비	20	-20	50	210	10	20
7~11일 변동폭	190	240	310	260	130	280
1~11일 변동폭	70	320	420	350	-40	300
11월 한달 변동폭	310	280	360	450	380	110



*. 제공 : (주)페로타임즈